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35>

오무과인자(吾無過人者)

다른 사람을 뛰어 넘은 것은 없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교전연구소 소장)

요즈음 정치판이 너무 시끄럽다. 장관 몇 명과 총리를 지명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면서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다. 그 가운데 어느 장관에게는 '여성의 둘 모델'이라는 찬사까지 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한 것 같지만 시끄럽게 된 것은 재능에 앞서야 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재능이 넘쳐난다 해도 도덕성이 흡족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었다.

전통적으로 보면 사람은 태어나서 온 천하 사람들을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였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천하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권위와 힘도 있어야 할 터이기에 높은 자리로 가려는 것은 정당화되었다. 높은 자리로 가야 온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었다. 자신을 닦는 수신(修身), 자기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제가(齊家)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치국(治國)의 단계를 거쳐야 할 수 있는 것이 평천하(平天下)다. 최고의 단계인 평천하를 하려면 수신과 제가와 치국의 과정에서 성공적인 사립이어야 평천하에 도전할 수 있을 터이다. 이번에 장관이나 종리가 되려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나섰을까? 평천하는 그만두고 치국(治國)이라도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번에 떠들썩한 것은 치국의 전 단계라 할 수 신과 제가가 안 됐다는 점에 있었다. 보통 사람도 안 하는 짓을 자신을 위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 일을 저질렀고, 나아가서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 집안 자녀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일을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 정도의 도덕성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를 응호하는 사람들은 수신과 제가를 못해도 치국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강변(強辯)하기도 한다. 이는 자기 하나, 자기 집안은 만인 앞에서 떳떳하게 다스리자 못하지만 나라살림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마치 인수분해도 못하면서 미적분은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 같아 보인다.

이러한 사람은 역사 속에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수양은 안전(眼前)에 있고 다만 자기는 똑똑하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온갖 논설로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이다. 재승덕(才勝德)인 사람이다. 이러한 인물 가운데 북송 시절의 왕안석(王安石)을 꼽으면 어떨까?

북송 신종시절에 왕안석은 문장도 잘 쓰고 고집도 세고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언변도 좋은 재기(才氣)가 넘치는 사람이다. 이를 본 깊은 신종을 그를 재상으로 모셨다. 그 재주를 천하를 다스리는 데 사용하라는 생각에서였다. 재상이 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온 세상을 새롭게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왕안석은 재상이 되면서부터 현재의 어려움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법이 잘 못 되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시행하자고 했다. 과거부터 내려오는 법은 다 뜯어 고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많은 새 법을 만들었다. 이른바 신법(新法)인데 이것으로 과거의 것을 뒤집어엎기 시작했다. 잘 되었을까?

많은 신법 가운데 예를 하나 들어 보자! 당시 백성들 가운데는 춘궁기가 되면 양식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고생하는 농민들을 위

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청묘법(青苗法)이었다. 봄에 백성들에게 청묘전(青苗錢)을 나누어 주면 백성들은 그 돈으로 곡식을 사 먹고 춘궁기(春窮期)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확철인 여름과 가을에 원금에 이자 2푼을 불여서 갚게 하자는 것이다.

이 말만 들으면 이 법이 시행되면 백성들은 춘궁기를 쉽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았고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니 황제인들 반대할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이 제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자율이 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꿈 수도 있었다.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 백성을 상대로 국가가 이자를 받으려는 것이었다. 그가 살았던 시대를 감안한다면 기상천외한 취령(聚斂)의 꿈을 꾸었다.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아 돈을 짚어모고 싶은 데, 그것은 뒤에 감쳐두고 복질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명분만 앞에 내 세워서 실행에 옮겼으니 백성들에게 보태줄 정책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겉으로는 백성들을 돋는 것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뜯어갈 정책을 세웠으니 재상으로서는 사악한 짓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감추어진 사악함을 황제인들 백성들인들 간파했는가? 신종은 이 새 법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실물경제를 무시했기 때문에 생활과 현장이 전혀 달랐다. 즉, 백성들이 청묘전을 받아서 곡식을 사 먹어야 하는데, 춘궁기에 곡식 값이 올랐으므로 벌린 돈으로는 비싼 값의 곡식을 사다가 연명하였다.

그런데 청묘전을 갚는 수확철인 여름이나 가을이면 곡식이 쏟아져 나오고 또 너나없이 청묘전을 돈으로 갚아야 해서 수확한 곡식을 내다 팔니 곡식 값은 형편없이 싸졌다. 그래서 봄에 벌린 돈으로 쌀 한 말 사서 먹었지만 여름이나 가을에 벌린 돈을 갚으려면 쌀 두 말을 팔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게 되었다. 돈으로 따지면 이자 2푼을 더한 것이지만 곡식으로 따지면 쌀 한 말 먹고 두 말을 내는 것과 같았다.

두 번째로는 재상 왕안석의 진짜 목표는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으려는 것이므로 백성들이 되도록 많은 돈을 벌려 가야 했다. 그래서 이를 진행하는 관리들에게 청묘전을 많이 벌려 주는 관리를 우수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래서 말로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청묘전을 벌려 준다고 했지만 관리들은 강제적으로 청묘전을 살포하여 윗사람에

게 능력을 보이려고 했다. 그러하니 필요 없는 백성들까지 고리(高利)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겉으로 말한 것과는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온 정책이었다. 이 엉터리 정책은 보통 사람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었고 이를 바주 있는 사람에게 생활해 낼 수 있었던 정책이었으니 재승덕(才勝德)이 가져온 학화(慘禍)였다. 이러한 재주꾼들의 정지는 근 20년 계속되었고 이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했기에 무지한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시대는 1085년에 신종이 죽으면서 끝났다. 그의 어린 아들 철종이 등극하였고 신종의 어머니이며 영종의 황후가 태황태후가 되어 수령정(處令政)에 들어갔다. 영종은 인종의 당질(堂姪)로 인종을 이은 사람으로서 태황태후는 처음부터 황후가 될 것으로 생각지 못하였다가 남편이 황제가 되는 바람에 황후가 되었고, 태황태후를 거쳐서 태황태후에 이른 사람이다. 말하자면 세상 물정을 좀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급진적 개혁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왕안석의 개혁정책이 반대하면서 점진적 개선을 주장했던 사마광을 불러들였다. 그동안 낙양에 머물면서 차지통감을 편찬하였고 이를 막 끝낸 상태였다. 이미 나이가 66세에 이른 터라 몇 번 사양하였지만 다시 나라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탁과 그 사명감으로 병든 노구를 이끌고 조정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의 일념은 백성들이 먼저 알아보고 그가 바로 진짜 재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였다. 해서 전지(田地)에 일하는 지야비(地主)와 들판에 있는 늙은이 모두 사마상공(司馬相公)이라고 존칭을 붙여 말했고 부인이나 유자(孺子)까지 그가 사마군(司馬君實)이라는 것을 알았다. 온 백성의 기대를 받은 것이다.

재상이 된 사마광은 조정에 들어와 함께 일하자고 등주에 있던 소식(蘇軾)을 불렀다. 소식이 경사인 개봉을 향해 떠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연도(沿道)에 모여서 소식에게 부탁하는 말을 했다. "사마상공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정(朝廷)을 떠나지 말고 두텁게 스스로를 아끼어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사마광에게 건강을 지켜서 오래오래 재상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사마광이 재상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송과 대치하고 있던 북방의 요(遼)

에서는 송과의 경계지역에 있는 관리들에게 새로 운 신칙(申飭)을 내렸다. "중국에서 사마광을 재상으로 삼았으니, 절대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변방의 틈새를 만들지 말라." 잘 못했다가는 송에 게 뒤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한 것이다.

또 사마광 자신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 그것을 알았기에 몸소 많은 업무를 처리하라고 주야를 가리지 아니하니 빙객(賓客)들이 그의 건강을 염려하였다. 예전에 죽한의 제갈량(諸葛亮)이 위(魏)와 대결하면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오장원(五丈原)에서 죽은 것을 때울리면서 일을 좀 적게 하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마광은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다."라고 하면서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재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러한 사마광은 재상이 되어 겨우 1년 남짓하다가 죽었다. 그 동안 많은 것을 돌려놓기는 했지만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태황태후도 통곡하였고, 백성(百姓)들은 그가 죽고 나자 저자리를 철풀하고 가서 조문하였고 웃을 팔아서 전(奠, 제물)을 올렸으며 골목에서는 곡을 하였고 그가 죽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거나 조문하려고 왕래하는 수레가 수천, 수만이었다. 경사(京師)에서는 백성들이 그의 초상을 그려서 인쇄해 가지고 이를 팔았는데, 각 집에서는 이를 사서 집에 모시고, 마시거나 먹을 때에는 반드시 그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그만큼 그는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에 태황태후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낌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얼마나 능력이 있었길래 그러했을까? 그렇지만 사마광은 항상 '나는 다른 사람을 뛰어 넘는 능력을 가진 것은 없다.'고 말하였다. 보통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통 정도의 상식만 있으면 정치는 잘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정치를 하는 데는 수신과 제가가 중요하지 재기(才氣)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청년들은 알바자리로 내몰리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생전에 내집 가질 꿈은 산산조각이 난 이 시대를 누가 만들었을까? 수신, 제가를 우선으로 하지도 않고 먼저 똑똑하다는 것을 내세운 재상이 넘친 사람들을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여전히 수양은 뒤로 한 채 꼼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되고 국무총리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또 왕안석 같은 꼼꼼의 정책만 시행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 칼럼은 지난 5월 22일에 썼습니다.)

안동권씨문화인회 발기인 준비모임 성료

2021년 6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권씨 문인회> 발기 모임
이 광화문 소재 <한국성씨총연합> 회의실에서 개최되었
다. 참석자는 권대



권준영, 권희수, 권비영, 권오철, 권대근, 권남희, 권계주, 권오윤, 권득용, 권정수(뒤쪽 원쪽에서 시계방향으로)

권오윤 준비위원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맹례, 경과보고, 정관, 조직구성, 사업개요 등의 토론이 있었다. 조직은 짐작적으로 구성하고 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출하기로 하였다.

정기총회는 2021년 10월 2일 2시 대전

시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총회

시점의 방역지침을 참조하여야 하므로 추

후 공지하기로 하였다. <글 권오철 기자>

교촌치킨 권원강 전 회장

전국 가맹점주에 100억원 상당 주식 증여

교촌에프엔비 창업주인 권원강 전 회장이 전국의 모든 교촌치킨 가맹점주에게 총 1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하기로 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3월 교촌에프엔비 창립 30주년을 맞아 사내 100억원 출연을 약속한 바 있다.

증여 시기는 오는 7월이며 그 규모는 전국의 1300여 교촌치킨 가맹점주에게 최소 400만원대에서 최고 1200만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전 회장은 "가맹점주가 진정한 동반자로서 본사와 함께 지속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증여를 결정했다"며 "어

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객 만족을 위해 힘쓰는 가맹점주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이종 교수 인터뷰365 선정

'굿피플 베스트 10'에 선정



권이종(權彝鍾, 1940년생, 34세, 추밀공파 정헌공계 남강공종중)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 회장이 교수가 '인터뷰 365'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이 시대의 희망과 사랑의 나침반이 되어준 열한 번째 <굿피플 베스트 10>에 선정(5월 18일 현재 기준)됐다.

'인터뷰365'에서는 2020년부터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인물을 선정하는 기획 프로그램 <굿피플 베스트 10>을 1년 365일 상시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영화 '국제시장'의 실존 주인공의 한 사람인 권 회장은 2006년 정년퇴임한 후에

<2021年 6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5. 29. ~ 6. 28.

총 납부자 19명

(이름순)

				단위:원	
*권태남	30,000	권영복(제천오토리)	30,000	권태연(제천)	30,000
*권형기	30,000	권오종(성남)	30,000	권택형(상주)	30,000
권기익(서울서초)	30,000	권오추(안동)	30,000	권혁준(경산)	30,000
권동한(포항)	30,000	권재영(서울영등포)	30,000	권형선(인천)	30,000
권병선(안양)	30,000	권정태(합천)	30,000	송중섭(수원향교)	30,000
권순백(세종)	30,000	권중섭(수원)	30,000		
권순채(서울송파)	50,000	권진남(경기이천)	30,000		총 590,000원

*표시한 납부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종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3만원
종보 대금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 2021년 2월호와 함께 종보 대금 지로용지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동명이인 등으로 납부자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오니 통장 입금 시 입금자란에 입금자명